사 설

경제 내세우는 입지자, 실행의지 보여야

이전 공약들 문화와 복지, 도로 개선 치중 지적
시민 하소연 앞세워 실행계획까지 세워야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 가려있지만, 지방선거를 향한 후보들의 물밑 행보가 바쁘다. 전주시장 선거전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장 자리는 이미 김승수 현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한 터여서 입지자들의 각축이 뜨겁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이지만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군은 5명에 이른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조지훈 전 전북도 경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복당설이 나도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전주 경제 활성화'를 역설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출마 의지를 밝힌 유창희 전 부의장은 기업경영 이력을 앞세워 실물경제 전문가임을, 조지훈 전 원장은 청년 정책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우범기 전 부지사는 예산통임을 앞세우고 있다.

임정엽 전 군수 역시 완주군수 재임 때 이룬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이중선 전 행정관은 중앙의 고른 인맥을 자산 삼아 경제 활성화를 자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나 실행계획,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전북의 수부 전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믿음직하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어렵다. 그러나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속내를 알아야 한다.

후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주가 지난 수년간 경제 활성화보다는 문화와 복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개선 같은 일에 치중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시민 공론까지 거친 대한방직 터 개발 지연, 경기장 재개발 지연처럼 활성화 계기를 실기했다는 호된 비판도 많다.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판에 지역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심하다는 호소도 많다.

시장을 해보겠다고 나선 입지자들이 유권자들의 이런 불만과 하소연을 간파한 게 분명하다. 문제는 득표를 위한 구호가 아니라 실행계획과 의지다. 시민들의 간절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미리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익산 장점마을 보상 똑바로 하라

시, 주민 위로금 지급 속도
암 발병 사태 정부가 나서야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 사태를 겪은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2011년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이 이 마을로 입주한 이후, 주민 99명 가운데 34명이 각종 암에 걸려 1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며 정부 역학조사 결과,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시는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18명과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및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4명 등 총 29명에 대해서도 화해권고 결정 및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행함에 따라 175명 가운데 협의에 찬성한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가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질병 치료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관련 예산이 현재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65억원을 (구)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 사업비로 확보했다.

특히 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보상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신청 063) 230-5712

오늘의 길목

나라 세웠으면 역사를 고쳐야지

이 존 한 한국화가·호산서원 원장

백성(民)이 가장 무겁고 중하며 나라(社稷)는 그 다음이며 임금(君)이 제일 가벼우니라

우왕 14년(1388) 5월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유명한 "4대 불가론(四大不可論)"을 외치면서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을 단행하자 개경(開京: 개성) 거리에는 "목자득국(木子得國)"이라는 풍설이 난무하였다. 목(木)자와 자(子)자를 합치면 이(李)가 된다. 즉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얻어 임금이 된다는 뜻이였다. 쿠데타의 시나리오가 그러한 것처럼 이성계도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흉인 염흥방(廉興邦) 임견미(林堅味) 등을 극형에 처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민심을 등에 없고 반대세력 정적(政敵)의 제거에 나선다. 또한 수구세력의 두령격인 최영(崔瑩)과 높은 학덕으로 풍미한 석학 우현보(禹玄寶) 등을 제거하더니 정몽주(鄭夢周)마저 선죽교에서 주살하는 것으로 성공한다.

오늘날 경험한 바와 같이 혁명의 실세들에게 등을 떠밀려 수상(門下侍中) 자리에 오르고 임금은 허수아비가 된다. 우왕(禑王)은 강화도에 부처 되었다가 강원도 강릉으로 옮겨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창왕(昌王) 또한 강화도에 추방되면서 서인(庶人)으로 강등되고 추대된 공양왕(恭讓王)은 스스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신하인 이성계와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동맹을 맺기까지 하였다.

경이 없었던들 내 어찌 이에 이르렀으랴 경의 공과 덕을 어찌 잊으랴 황천(皇天)과 후토(后土)가 내 위에 있고 내 곁에 있으니 대대의 자손들은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경에게 저버림이 있으면 이 맹세와 같을 것이다(원문생략) 이같은 동맹의 약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를바가 없고 약조문이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군도(君道)를 잃었고 민심이 이미 그에게서 떠났으니 사직과 생령(生靈)의 주(主)가 될 수 없으므로…라는 구실을 붙여서 강원도 원주에 부처하였다. 장장475년 동안이나 왕권을 이어온 고려왕조는 이렇게 종말을 고했다.

이성계는 학덕을 갖추지 못한 자질로 어찌 왕위에 오를수가 있는가를 되풀이 강조하며 극구 사양하다가 마침내 7월17일 실세들에게 등을 떠밀리어 용상에 오른다는구색을 갖추면서 수창궁(壽昌宮) 화평전(和平殿)에서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 새나라의 창업을 선언하였지만 실상은 나라의 이름(國號)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두달뒤인 11월27일 비로소 새 나라의 국호를 거론하게 하였다. 마침내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의 두 가지로 압축됐다. 조선이야 예로부터 동이(東夷)의 나라로 불리어 왔으니 당연하지만 화령이라는 지명이 국호로 등장한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곳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이 전하께서 탄생하신 성스러운 곳이니 화령으로 거론된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과 화령중에서 국호를 정하기로 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게 된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유민들이 뿜어내는 따갑고 원한에 찬 눈초리를 견딜수가 없어 천도(遷都)를 서둘게 되었다. 그리고 2월 13일에 명나라로 갔던 한상질이 귀국하여 국호가 조선으로 정해졌음을 고했다.

태조는 새 나라의 국호가 '조선'임을 널리 선포하고 왕사(王師) 무학대사(無學大師)와 신료들을 거느리고 신도안(神都內: 신도내)을 세세히 답사하고 새 도읍지로 확정하였다. 기와를 굽는사람 철물을 만들어야 할 대장장이 목재를 다듬을 목수등이 공장(工匠)을 불러들여 공사를 가속화하고 있을때 경기좌우도의 도관찰사인 하윤(河崙)이 계룡산 정도가 잘못되었음을 고했다.

연유는 계룡산이 국토의 남쪽에 치우쳐 있으며 물이 장생(長生)을 피하여 곧 쇠퇴할 땅이라는 것이었다. 당대의 석학이면서도 도참설(풍수지리설)에 능했던 하윤의 진언이기도 하고 이방원의 계열임을 감안한다면 무게 실린 주청이 아닐 수가 없었다. 조선왕조의 수도로 정해진지 10개월여만에 그것도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취소되어 지금의 터전인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게되었다.

태조3년(1394) 10월28일 조선왕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다음해 6월6일 한양부를 한성부(漢城府)로 고쳐 이후 519년동안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서둘러 건설해야할 종묘(宗廟)와 사직단(社稷壇)이다. 사직단은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으로 나누어지고 나라의 국토신(國土神)은 사단에 모시고 농사의 오곡신(五穀神)은 직단에 모신다.

법도에 따라 좌묘우사(左廟右社)다 종묘는 역대왕실의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태조 강헌대왕실록에 적인 황조실(皇祖室)의 책호문에는 공(功)이 있는 이는 조(祖)로 하고 덕(德)이 있는 이는 종(宗)으로 하니로 되어있다. 역사는 정론(正論)이어야 하는 까닭에 역사를 기술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이나 삶에 귀감이 되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책이름에 거울 감자를 쓰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역사의 전대를 살피는 거울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온누리

애타는 희망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연초에 품었던 계획들은 어디로 갔을까? 무엇을 하며 한 해를 보냈던가? 시간은 급물살을 타고 흘렀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 자명한 사실은 어김없이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것.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니, 그것도 백 퍼센트는 아니다.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가 되었다. 자칫하면 그럴 여유가 없다고 넘어가기 일쑤다. 우리의 세계는 거칠고 잔인하면서도 신성한 아름다움이 있다. 무의미와 의미는 어떤 것이 더 우세하다고 믿느냐는 개인의 기질에 따라 결정된다. 무의미가 지배적이라면, 인생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에 의하면, 십중팔구 양쪽 모두 다 진실이다.

삶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렇지만 융은 의미가 우세하며, 이 둘의 전투에서 이기리라는 '애타는 희망'을 가진다고 했다. 삶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찰과 통찰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럴 때 삶이 아름다워진다. 대개의 갈등은 인간관계로부터 빚어진다. 에너지는 상호교류하기 때문에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신뢰와 사랑이 돈독해진다. 행복감과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런 뜻에서 '더불어 행복해지는 십계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살아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둘째, 누군가를 만난 것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순리대로 극복해나갈 것을 믿자. 셋째, 누군가를 만난 것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넷째, 매일 감사한 것을 한가지씩 꾸준히 떠올리자. 다섯째,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 대상은 이 세상에 살아있거나, 이미 돌아가셨던 분, 혹은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가운데 분명히 있다. 여섯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과 도움을 주었던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도움을 주는 일을 늘려라. 도움은 엄청난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뜻한다. 일곱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마련하라. 여덟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세상과 연관 지어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 아홉째, 아무리 최악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보라.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자신을 살펴보라. 열째, 매일매일의 삶은 영혼을 성장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러한 영혼의 성장은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계명의 효과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말도 되지 않다고 치부하면, 그럴 것이다. 피상적인 말이어서 와 닿지 않는다고 해도 그럴 것이다.

반면, 받아들이고 품으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융의 말대로 '애타는 희망'을 가진 채 감히 당신 앞에 바친다.

/박정혜(심상 시치료 센터장·전주대 겸임교수)